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초정광천수의 사회적 변화

- 음료산업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

박구원*
parkfor@cj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1 초정광천수의 제조공장 및 소유권 변화 |
| 2. 이론적 고찰 | 4.2 초정광천수 및 음료산업의 사회적 변화 |
| 3. 연구방법 | 고찰 |
| 4. 연구결과 | 5. 결론 및 시사점 |

主題語: 초정광천수(Chojeong Mineral Water), 천연탄산수(Natural Carbonated Water), 소유권(Property), 공장(Factory), 中原(Nakahara), 柴田(Shibata), 小林(Kobayashi), 크리스탈(Crystal)

1. 서론

초정지역은 세종대왕이 안질과 피부병 치료 등을 위해 방문해 오랜 기간 머물며 병을 치료한 곳이고, 세계3대 광천수로 인정받으며 국내 근대 물산업의 효시를 이루는 곳이다. 또한 현재 지역에서는 초정광천수를 충청북도의 지역연고자원으로 위치시켜, 음료와 휴양을 결합한 특화된 산업단지로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그 자원으로써 갖는 역사적 가치와 지역자본으로서 갖는 의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외형적인 것일 뿐, 그 가치와 진실이 충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특히 빈약한 부분은 일제 강점기로 이 시대의 역사는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히 많지만 그것이 연구나 공식자료로서 밝혀진 것은 의외로 적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옛 사료를 인용한 몇 몇의 신문기사와 일화공장에서 나온 1편의 기고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초정광천수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일제강점기라 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계 3대 광천수」란 말이 탄생한 것도 이 시기이고, 초정에 생산설비가 들어서 최초로 음료산업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초정리라는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마을이 형성된 것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즉, 초정광천수 발전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는 매우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때 초정광천수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세계3대 광천수로 발전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은 초정광천수는 물론, 한국의 근대 물 산업과 향토산업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초정광천수의 사회적 변화를 밝히는 첫 번째 연구로서, 우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음료산업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초정광천수의 사회적 변화과정을 밝히고, 그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초정광천수는 충북 청주시 내수읍 초정리 일원에서 자연용출되는 천연광천수를 말한다. 초정광천수는 그 성분이 특이해 「초정약수」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초정리에 있기 때문에 「초정리 광천수」라 부르기도 한다. 이 물은 일반적인 광천수와는 달리, 그 성질이 매우 차고, 후추처럼 톡 쏘는 맛이 강해 일찍부터 초수(椒水)로 불렸으며, 특히 살균 및 소화 작용이 뛰어나 치료수나 음용수로 이용되어 왔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초정지역은 고려시대에 「초자은소」라 불리던 지역이다(世宗實錄地理志, 1454). 때문에 이 지역은 구녀산을 중심으로 은(銀)을 채취하며 살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초정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초자은소」라고 불렸다고 하는 것과 구녀산의 전설만이 구전으로 내려올 뿐 아무런 기록이 없다. 이 지역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세종대왕 행차에 따른 것으로, 초수라는 명칭도 여기서 비롯된다. 즉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께서는 안질과 피부병이 심해 그 치료와 요양차 1444년 소헌왕후와 세자 그리고 진양대군 이유와 신하 등을 데리고 이곳에 봄과 가을 2차례(3/2-4/30, 7/15-9/14) 방문하여 작은 행궁을 짓고 117일 동안 머물며 병을 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세종 103-105권). 그리고 1443년 1차 완성된 훈민정음은 이 과정을 통해 다듬어져 1446년 반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최초로 한국인의 문자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동 기록에 따르면, 이 초수 행차 때에는 다른 것을 다 물리고 한글과 관련된 책만 갖고 내려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따라서 초정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가장 오랜 기간 치료와 요양을 한 치료수이자, 가장 위대한 문자인 한글이 탄생된 곳이라 말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1448년 3월 초정행궁은 불타 없어지고,

그 14개월 후인 1450년 1월 세종대왕은 승하한 것으로 나타난다(세종 119권). 그리고 당시 세종대왕과 함께 동행 했던 세자는 이후 왕(세조 1455-1468)이 되어, 1464년 다시 치료차 이 지역을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세조 32권). 세종과 세조대왕이 행차한 이후, 이곳은 하나의 신비한 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되었고, 그들이 남긴 많은 비문과 시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왕의 행차와 치료효과 등이 알려지자 매년 음력 7월 백중날에는 일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백중행사는 연례행사처럼 행해져, 1960년대 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존의 자료와 기사에 따르면, 한일합방 이후 신문물이 도입되면서, 초정지역에는 음료공장이 들어서고 초정리 광천수를 이용한 음료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초정광천수는 세계3대 광천수로 인정받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도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는 초정광천수가 치료수에서 음료산업으로 전환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국내 음료산업의 뿌리를 내린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실제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다.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초정광천수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초정지역에 1920년대 초 나가하라(中原鐵臣)라는 사람이 들어와 공장을 짓고 초정광천수를 이용해 천연탄산수와 탄산사이다를 제조 판매했다는 기록이다. 이것은 『청주연혁지』를 근거로 지역신문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청주연혁지, 1923:197-198). 다른 하나는 초정광천수의 소유권이 초기 창덕궁에서 1939년(昭和14年) 5월 李王職長官으로 이전되고, 그것이 1967년 2월 국성실업주식회사의 이종우 씨를 거쳐, 1971년 4월 청주시 우암동 소재의 김우현 씨에게 이전되었다는 기록이다. 이것은 「초정행궁터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2009년)」에서 초정원탕 주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한편 초정리에서 나고 자란 지역원로 최태영 용(1937년생)에 따르면, 세계3대 광천수의 지정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최 용은 “초정약수가 세계 3대 광천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제치하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외국에 우리나라 초정약수를 가지고 가서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최 용은 “당시 초정약수는 일제 천황에게 진상하였는데, 그 전에 검증이 필요했었다. 초정약수가 값진 물인 것을 알고서는 녹용, 인삼 보다 더 대우를 받았고, 나중에 남양군도 전리품으로 보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계광천학회」에서 이곳 초정에 있는 물(초정광천수)을 직접 가져가 시험 분석한 결과 동양에서는 가장 신비한 좋은 물이라고 호평하고, 미국의 샤스타, 영국의 나포리나스와 함께 초정약수를 동양의 가장 신비한 물이라고 발표하자 ‘이곳 초정의 고바야시광천(小林鑛泉)에서는 초정에 천연탄산수는

세계 3대 광천수이다.’라고 제품에까지 선전 광고하게 되었다. 고 회고하고 있다.

그러나 나카하라(中原鐵臣)가 어떻게 이 지역에 들어와 어떠한 방법으로 음료산업을 육성시켰는지는 불분명하고,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초정광천수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지역원로 등의 기억에 따르면 그것이 고바야시광천이 들어와 초정광천수를 해외에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3대 광천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고바야시광천이 초정지역에서 활동했던 기록은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세계3대 광천수와 의 관계도 명확치 않다. 이러한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연구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음료산업의 발전은 제조공장과 소유권의 관계가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편적인 몇몇 기록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해 온 실정이다. 음료산업 발전에 대한 그 전후관계를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은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연구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초정광천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색해, 자료를 찾는 것로부터 시작했다.

일제 강점기 때 초정리 또는 초정광천수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해 보면, 총3가지 유형의 자료가 발견된다. 그 하나는 일제 강점기 때 당시 공적기관에 의해 발행한 공식자료다(특히 일본인에 의해 저술된 책과 보고서). 여기에는 1923년 2월 출판된 『忠北産業誌(충청북도)』와 1923년 9월 출판된 『淸州沿革誌(청주시)』가 있고, 이 이외에 1926년 3월 출판된 『朝鮮地質調査要報』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특히 이 『朝鮮地質調査要報』는 「초정리냉탄산광천조사보고」라는 부제목으로 출판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집필자들이 간접적인 데이터를 통해 기술하고 있는 기존의 자료와는 달리, 당시 물 관련 전문기사가 초정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 머물면서 초정광천수를 실측했고, 그를 통해 초정광천수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 기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역에 전혀 알려지거나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자료는 국사편찬연구원에서 일제 강점기 때의 자료를 수합해 놓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이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기업체, 인물, 사건 등의 자료가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초정과 관련된 기업체와 관련된

물 등을 탐색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당시의 뉴스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NAVER『뉴스라이브러리』이다. 여기서는 초정리, 초정광천수, 초정약수, 탄산수, 충북탄산 등의 키워드를 통해 관련된 기사와 사건 등을 검색했다. 이들 기사는 초정 및 초정광천수 등과 관련된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총56건이 검색되었다.

<표 1> 조사자료

구 분	조사항목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공식자료 (日本人 저자)	• 1923년 2월 발행, 忠北産業誌 (天野行武 編, 大正12년 2月 28日 發行, 忠淸北道) - 산업광천: 天然鑛泉水, 水安堡溫泉
	• 1923년 10월 발행, 淸州沿革誌 (大熊春峰 著, 大正12년 10月 15日 發行, 淸州郡) - 명승고적 : 椒井里藥水 - 기업광고 : 中原炭酸水工場
	• 1926년 3월 출판, 朝鮮地質調査要報 第七卷[椒井里冷炭酸鑛泉調査報文] (駒田亥久雄, 大正15년 3月 31日 發行,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 위치, 광천의 유래, 기상 - 광천장 현황 - 지세와 지질 - 광천의 화학성분 - 결론
일제 강점기 때 내용을 수집해 놓은 공식자료	• 1910-1945년 내용,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연구원, 2000-2014 정보구축) - 한국근현대 회사조합자료 - 한국근현대 자료집성 - 한국근현대 인물자료 등
당시의 신문기사	• 1924-1945년 기사, NAVER 「뉴스라이브러리」 - 초정지역, 초정광천수 관련 기사 56건
이외의 관련자료	• 忠淸北道 要覽(1928): 충북 100년(1996) • 朝鮮연감 1943-1945 • 1896-2002, 충북 100년 연표(1896-2002, 2004, 충청북도) 등

연구는 이들 3종류의 데이터를, 시간별로 정리하고, 이를 제조공장과 소유권에 관련된 사건과 인물별로 재분류해, 이들의 상호적인 관련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음료산업에 대한 시장규모 등에 대한 고찰을 가해, 초정광천수의 산업적인 변화과정과 그 변화적 특성에 대해 고찰했다.

4. 연구결과

4.1 초정광천수의 제조공장 및 소유권의 변화

4.1.1 中原와 中原炭酸水工場

忠北産業誌(1923)와 淸州沿革誌(1923)를 통해보면, 초정지역에 초정광천수를 이용한 공장이 들어선 것은 1921(大正10)년 8월 이후로 나타난다. 그리고 주인은 경성에 있는 中原鐵臣이라는 사람이고 그는 경성호텔 경영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26년 출간된 조선총독부 「朝鮮地質調査要報-椒井里冷炭酸鑛泉調査報文-(大正15년)」에 따르면, 그 설립과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본 광천에 내지인의 손이 스며 든 것은 明治40年(1907) 7월 安充化씨에 따라 當時 長湖院在住의 小野綱方씨가 매수한 것을 기화로 시작(嚆矢, 효시)되고, 그리고 그 후 오랫동안 利用의 道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시켜 왔지만, 大正8年(1919) 8월에 이르러 현재소유자 中原鐵臣씨의 소유로 귀속되고, 그리고 炭酸水を 음용으로서 시장에 선보인 것은 실로 大正10年(1921년) 8월 이후가 되어, 현재 1개 년 4打入의 5천 乃至 1만 상자(箱)를 제조판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초정광천수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간 것은 1907년 7월이고, 그를 최초의 사업으로서 운영한 것은 中原鐵臣(Nakahara Tetsuomi)으로서, 그는 1919년 초정광천수를 매수하고 공장을 설비하여, 1921년 8월 이후부터 천연탄산수와 천연사이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상기 자료(1926)에 따르면, 이때 초정지역에는 3개의 泉(가칭 제1호천, 제2호천, 제3호천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中原鐵臣은 이중 가장 위 지역에 있는 제1호천(영천)과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제3호천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2호천과 3호천 사이(현재의 일화공장 부근)에 공장을 짓고, 제1호천인 영천에 파이프를 박아 물을 끌어들이고, 3호천에서 생산되는 탄산와사(gas)를 이 광천수에 혼합해, 천연탄산수와 천연사이다를 제조 판매한 것이다. 그리고 1930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크리스탈”이라는 명칭으로 경성호텔 등에 납품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지금까지의 자료에서 나카하라는 “경성호텔 경영자”로 나타나지만, 당시 기록을 통해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中原鐵臣은 아마구치 현에서 태어나 아마구치은행과 의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임하고, 1906년 조선으로 건너와 경성호텔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931년 3월 현재, 경성호텔 대표는 中原光吉이고, 中原鐵臣은 회사중역의 한사람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근현대 인물자료에서 中原光吉(1881년생, 1931년 당시 50세)을 찾아보

면, 경성호텔 대표 中原光吉은 한국에 들어와 1918년 富士製菓株式會社(1921년에는 京城菓子會社)를 창립해 이사장에 취임했고, 中原鐵臣씨는 그의 양부(79세, 1931년)로 나타난다. 즉 中原鐵臣은 中原光吉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재가해 만난 양부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전후 관계를 토대로 보면, 中原鐵臣은 초기 경성호텔을 운영하면서, 조정광천수를 매입해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 것에 있으나, 1931년에는 이미 79세의 고령인 탓에 경성호텔을 양아들인 中原光吉에게 물려주고, 중원상회를 통해 중원탄산수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淸州沿革誌(1923)에 나타난 기업광고를 보면, 中原鐵臣은 초정리(製造元: 忠淸北道 淸州 椒井里)에서 中原炭酸水工場을 운영하고 있고, 그 주소는 현재의 서울 중구(工場主: 京城 南山町)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즉 中原鐵臣이 中原炭酸水工場을 설립해 천연탄산수와 천연사이다를 생산한 것은 그가 경성호텔 오너였을 때이고, 경성호텔을 경영했던 中原鐵臣이 초정에 탄산수공장을 세우고, 청주와 서울을 오가며 생산 및 판매활동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카하라는 이후 경성호텔을 그의 양아들에게 물려주고, 초정공장에서 천연탄산수를 제조해, 생산된 제조품을 그의 친가가 운영하는 경성호텔 등에 공급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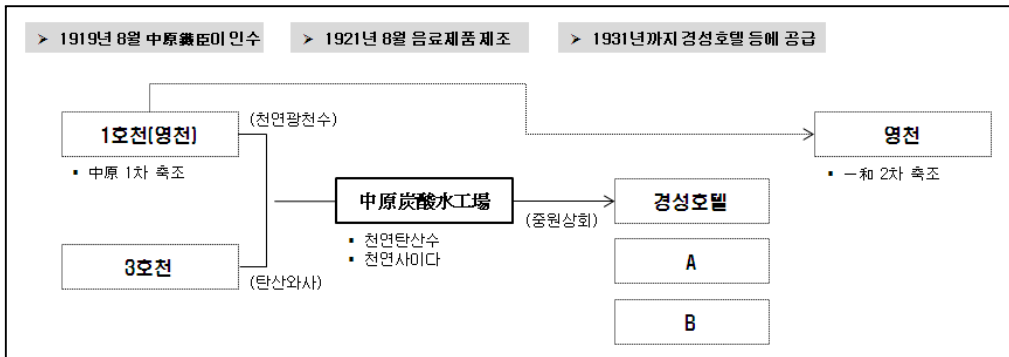
나카하라(中原鐵臣)가 설립된 공장의 정식이름은 「中原炭酸水工場」이고, “中原商會 天然炭酸水工場(天然炭酸水 天然サイダー)”으로도 불리었다. 이는 초정지역에서는 물론 국내 최초의 천연탄산수공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나카하라가 공장을 세우고 생산판매에 들어간 것은 1921년 8월 경이다. 기록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청량음료수가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 청량음료수와 관계된 기업명단을 보면 1921년 현재 8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인공적인 사이다 제조공장으로서, 이중 천연탄산수를 이용한 제품과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中原炭酸水工場과 거기서 제조된 천연탄산수와 사이다는 국내 최초 천연제품으로서 매우 주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정광천수의 상징인 영천(靈泉)이 1920년에 축조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기록(1926)에 따르면, 나카하라는 1920년 세종대왕이 이용했던 영천에 돌을 쌓아 천(泉)을 축조했고, 여기에 파이프를 박아 용출되는 광천수의 일정량을 공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후 초정리 영천은 축조공사 등이 전혀 없다가, 1981년에 (주)일화가 소유하게 됨에 따라 축조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¹⁾ 이때 (주)일화에서는 물의 양을 더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축조된 영천 위에 돌을 더 쌓아 올려 우물을 만들었고, 먼지 등으로부터 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모습처럼 지붕이 덮인 팔각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의 초정리 영천은 나카하라가 축조한 1차 우물에, 일화가 쌓아 올린 2차 축조를 통해

1) 1950년대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지하로 3m를 뚫다는 기록이 있다. 1981년 일화에 의한 영천의 축조는 1983년 부터 근무한 김학재 일화공장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영천은 나카하라가 조적한 돌과 그 위에 일화가 쌓아올린 돌이 누적되고 있을 뿐, 영천 그대로의 자연성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영천은 물 자체의 천연성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축조된 돌 자체도 시간의 흐름을 추측할 수 있는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라 볼 수 있다.

나카하라의 산업 이야기는 1931년까지 나타난다. 영천에 관해서는 1935년 신문기사에도 나타나지만 그것이 나카하라와 관련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나카하라는 1935년 6월 영동군의 광산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그해 10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이를 마지막으로 나카하라의 기록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초정지역에서 나카하라의 활동은 1919년에서 짧게는 1931년, 길게는 1935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中原鐵臣과 中原炭酸水工場の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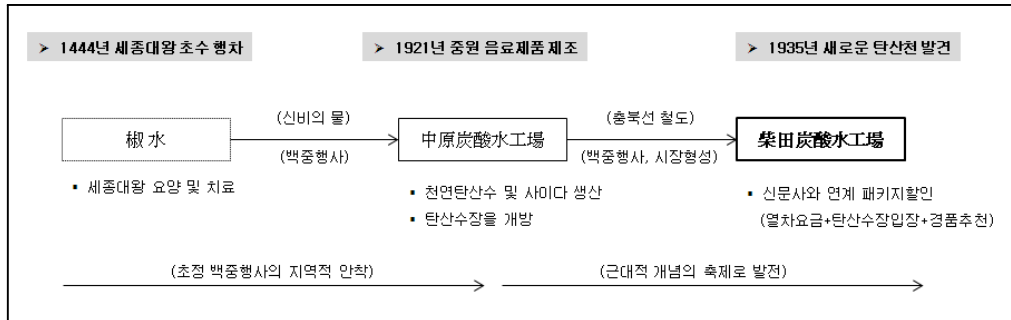
4.1.2 柴田와 柴田炭酸水場

이러한 中原商會의 독점체제는 초정지역에 柴田炭酸水場이 들어서면서 일변한다. 1935년 7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1935년 7월 일본인 시바타(柴田)라는 사람이 중원약수로부터 東方 약二 町되는 곳(一町 108m × 2= 216m 정도)에 천연탄산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해 탄산수장을 개설해 모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탄산수장은 실체는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개발해 운영한 것이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동 탄산수는 옛날부터 자연용출되고 있는 것으로 의약적 효력이 절대하다 하여 유명하던 바, 그 후 자연 매몰되어 금일에 왔다하는데 금번 시전(柴田) 씨가 6개 여월의 시일을 걸리어서 이것을 발견하고 일반에 공개토록 저간공사에 착수중인 바 원근각지에서는 벌써부터 試飲者가 운집하는 모양이라 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보면 같은 해 8월부터는 柴田炭酸水場에서 天然炭酸水飲料團(천연탄산수음료단)을 모집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柴田炭酸水場에서 탄산수가 제품으로 제조·판매되었거나 제조공장이 건설되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柴田炭酸水場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왜냐하면 柴田炭酸水場이 초정지역에 본격적인 탄산수시장을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 이후 음력 7월 백중에는 인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용과 치료를 하기 위해 초정광천수를 찾아왔다. 매년 여름철에는 이 영천을 개방하는 관습으로 가까운 고을이나 가까운 곳에서 찾아 들었으며, 50리, 100리, 멀리는 수백 리를 가리지 않고 이 지역으로 몰려들어 몇 만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상류의 사람들은 임시로 설치된 작은 집에 숙박하며 주야에 관계없이 약수를 마셔도 싫증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곳의 주변 아래에는 노점의 행렬이 생겨나게 되었고, 음식물, 기타의 것들을 거래하며 마치 시장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중원천연탄산수장이 개발됨에 따라 더욱 발전하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1923년 당시에도 초정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시장을 방불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 외지 사람들은 충북선 열차(1922년 5월 내수역 개통)를 타고 왔고, 열차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柴田炭酸水場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신문사 등과 제휴하여 본격적인 열차할인 및 행사를 홍보하며 대대적인 손님맞이를 하게 된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동아일보 청주지국과 연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열차와 상품(시음, 목욕) 등의 패키지 할인이 적용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팸투어와 같은 천연탄산수음료단이라는 것을 모집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가히 국내에서 행해진 근대 축제의 시초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기록과 기사를 통해 보면, 경승지의 탐험을 위해 탐승단을 모집한 사례는 몇몇 발견된다. 그러나 한곳에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장시를 이루고, 이들이 열차나 신문사 등과 연계해 패키지 할인이 적용되고, 축제와 연계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초정지역의 음료 산업은 단순한 물 산업으로써 뿐만 아니라, 백중행사를 매개로 초정리라는 지역자체가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초정지역이 갖는 중요한 가치이자 또 다른 산업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柴田炭酸水場에 관한 신문기사는 1935년부터 1937년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는 어떤 자료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활동기간은 매우 짧지만 柴田炭酸水場은 중원탄산수장과 함께 초정지역에 탄산수체험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관련자료를 통해 보면, 당시 시바타라는 사람은 많지만, 그중 柴田震이라는 사람이 1920년 3월 5일 음성군 음성면 원남면 금은광 광업권을 획득했고, 이 사람은 충북 장호원 거류지에 있던 광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38년 지역 주민에 의해 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柴田炭酸水場을 운영했던 시바타라는 사람은 당시 장호원의 일본인 거주지에 있는 광산업자 柴田震(Shibata Shin)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柴田 震과 柴田炭酸水工場の 활동내용

4.1.3 小林鑛業과 忠北天然炭酸水工場

초정지역에서는, 고바야시광천을 통해 처음 음료제품이 만들어지고, 이를 전후해 초정광천수가 세계3대광천수로 공인되어 세계로 수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고바야시광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사료를 조사해 보면, 「小林鑛業株式會社」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고바야시 광업에서는 1940년을 전후해 초정리에 「忠北天然炭酸株式會社」라는 공장을 짓고 천연탄산수와 천연사이다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기업체자료에 따르면 「忠北天然炭酸(株)」은 1939년 11월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는 富松梅太郎이라는 사람이지만, 대주주는 小林采男인 것으로 나타난다(1942년 9월 현재). 그리고 인물자료를 탐색해 거슬러 올라가면 小林采男(Kobayashi Uneo)은 1906년 아버지를 따라 조선에 건너왔고, 내각자원국 사무관을 지내다가, 이후 아버지가 운영하던 광산을 물려받아 1934년 2월 小林鑛業株式會社를 세우고, 1942년 현재 小林鑛業(株), 小林本社(株), 小林百年鑛山(株)의 대표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39(昭和14)년 7월 1일자 朝鮮新聞에 따르면, 小林采男은 1939년 7월부터 忠北天然 사이다를 제조·경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기사에는 「자본금 20만원(현재 시세 약26억원 정도)으로 小林鑛業王의 손에 경영하는 것으로 된 皇軍慰問의 청주군 북일면 초정리약수는 前金知事에 의해 忠北天然炭酸水株式會社로 명명되어 준비 중인 곳으로 점차 허가도 얻어 설비도 착착 준공되었기 때문에 7월 1일 경부터 개업」으로 나타난다. 즉, 鑛業王 고바야시는 1939년 7월 1일부터 충북천연탄산주식회사를 경영하게 된 것에 있고, 이것은 고바야시가 새롭게 만든 기업이라기보다는 이미 충북지역에서 충북천연탄산주식회사로 명명되어 준비되어 오던 것을 인수해 운영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小林鑛業王의 손에 경영하는 것으로

된 皇軍慰問의 청주군 북일면 초정리약수는」이라는 말에서 보면, 초정리 광천에서 제조된 상품이 고바야시 이전에 이미 일본군 기지에 공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기록에 따르면 고바야시는 상당한 엘리트 관료였으며, 광산업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강원도의 上東鑛山과 황해도의 百年鑛山이 크게 성공해 텡스텐의 왕으로 불린 사람이다(이들 2 광산은 당시 조선반도의 최대 광산이라 불리었음). 일본자료에 따르면, 「고바야시는 朝鮮の重石王으로 불리고, 朝鮮半島에서 採掘된 7割의 重石은 小林鉦業이 産出하고 있었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국내에서 연간수익이 가장 높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이덕일(2012)에 따르면, 1940년 9월 현재 연간소득이 가장 많은 한국인은 광산재벌 최창학 24만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23만원, 화신백화점 대표 박홍식이 20만원인데, 광업으로 성공한 일본인 고바야시는 연간소득이 1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사회를 위해 써야한다는 인생관의 소유자」로서, 사회사업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춘천농림학교 건립 등 많은 사회사업을 한 사업가로, 기업가인물란에 조선공로자로 표기되고 있다(조선공로자연감, 1935/1936). 또한 그는 이러한 성공을 토대로 일본에 이화학연구소를 처음 세워 일본의 이화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국 중공업 및 포항제철의 모태가 된 대한중석은 上東鑛山에 의해 발전한 것으로서, 국내 광공업 발전의 기반인 大韓重石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바야시광업이 충북천연탄산(주)을 설립하여 경영이 이루어진 1939년은, 고바야시가 이러한 광산업의 큰 성공을 이루고, 새로운 사회사업 등에 눈을 돌릴 때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 이화학연구소가 설립된 것도 1939(昭和14)년 4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기업체 자료에 따르면, 小林鑛業(株)이 경영했던 충북천연탄산(주)의 주소는 “충북 청주군 북일면 초정리 소재”로 나타나고, 사업목적은 「청주군 북일면 초정리 소재 천연 탄산천을 이용한 일반 청량 음료수 및 액화 탄산가스의 제조 및 판매, 기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후, 고바야시가 경영하는 충북천연탄산(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충북천연탄산(주)라는 이름은 해방이후에도 발견된다. 즉 기업체 자료에 따르면 1957년과 1959년 자료에 「충북천연탄산(주) 초정리공장」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초정리공장은 그 주소가 “초정리 81번지”로 되어 있다. “초정리 81번지”는 현재 초정문화공원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1971년 부터 1986년까지 (주)초정약수가 있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2010년까지 탄산가스 사무실이 있던 자리다. 따라서 고바야시광업이 1939년 7월 1일부터 설립해 운영한 충북천연탄산(주)은 “초정리 81번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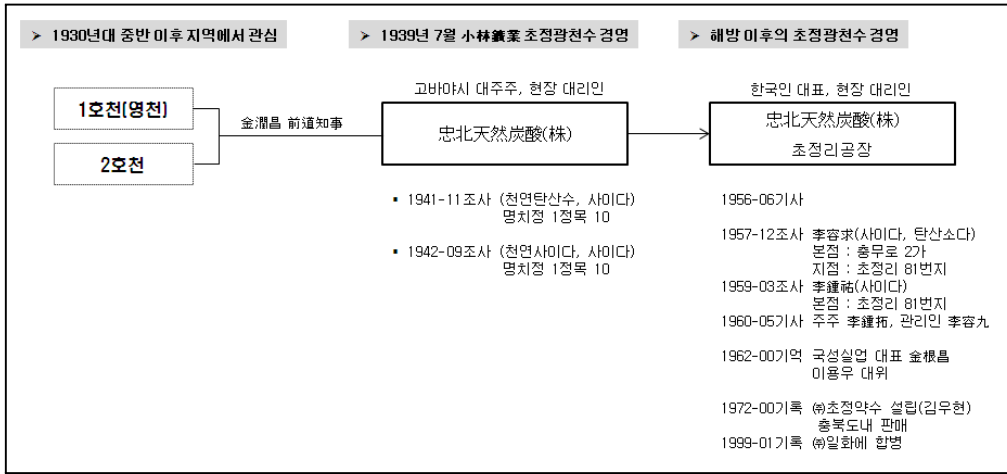
해방 이후 기록에 따르면, 충북천연탄산(주)은 해방이후 이용구(李容九)와 이종우(李種祐)

라는 사람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1972년 청주에 사는 김우현이라는 지역유지에게 넘어가 충북지역 최초의 향토기업인 (주)조정약수가 탄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고바야시가 운영하던 충북천연탄산(주)은 해방과 더불어 친분이 있었던 이용구 및 이종우 씨에게 경영권이 양도된 것이고, 이후 경영권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시 지역유지인 김우현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바야시광업은 충북천연탄산수공장을 통해 (주)조정약수로 이어진 것에 있고, 이 공장은 나카하라의 공장과는 좀 다른 것에 있다. 나카하라는 현재의 일화공장 부근에 공장을 짓고 영천인 1호천과 새로 발견된 3호천을 이용해 음료산업을 추진한 것에 있고, 고바야시는 2호천 동쪽에 있는 초정리 81번지에 공장을 짓고 운영한 것에 있다. 즉 나카하라의 증원약수공장은 (주)일화생수로 이어지고, 고바야시광천은 (주)조정약수의 원류를 접하는 것에 있다.

단지, 김해중(1981)의 연구에 따르면, 나카하라에 의해 음료공장이 만들어지고 해외까지 수출된 이후, 「1935년경에는 탄산가스공장을 건립하고 천연탄산가스를 채취하여 군대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초정지역에는 탄산가스공장이 초정리 81번지 부근에 있었고, 이 가스공장은 2002년 충북지역의 근대유산으로 지정되어 2010년까지 있었다. 따라서 고바야시의 충북천연탄산공장의 위치와 이들 탄산가스공장의 위치는 겹치는 것에 있다. 즉, 관련제품이 세계로 수출되자 나카하라는 말년에 탄산가스공장을 새롭게 설립한 것에 있고, 고바야시의 공장은 이 탄산가스공장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주군 북일면 초정리약수는 前金知事에 의해 忠北天然炭酸水株式會社로 명명되어 준비 중인 곳으로.” 라는 표현에서 보면, 1935년 나카하라 구속 이후, 도 차원에서 이미 탄산수공장을 준비했고, 그를 당시 사업가로 성공한 고야바시에게 위탁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토지대장을 보면 초정광천수(영천과 그 주변 토지)의 소유권은 초기 창덕궁 소유에서 1939(昭和14)년 5월 李王職長官으로 이전되고, 그것이 1967년 2월 국성실업주식회사의 이종우 씨를 거쳐, 1971년 4월 청주시 우암동 거주의 김우현 씨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임동철(2009)에 따르면, 초정광천수 주변의 토지는 1912년 창덕궁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들 토지의 일부는 이미 1908년 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매입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초정광천수는 원래 왕실자산이었으나, 나카하라는 왕실자산이 이러한 개인 소유로 양도되는 시기에 영천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바야시는 이들 토지가 李王職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광천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李王職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明治43年(1910) 12월 30일에 설립된 것에 있으나 황실령 제34호(조선연감 1938)에 의해 지역자본이 李王職으로 넘어간 것은 1942년 부터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초정광천수의 운영이 나카하라에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전체적

인 소유권은 불분명 한 상태였고, 그 소유가 李王職이라는 일제의 소유가 된 것은 고바야시가 활동하던 1942년경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일화생수로 이어지는 나카하라는 좀 더 사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주)조정약수로 이어져 오는 고바야시광천은 좀 더 공적인 영역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小林鑛泉과 忠北天然炭酸水工場

4.2 조정광천수 및 음료산업의 사회적 변화 고찰

4.2.1 제품의 생산 및 시장규모

조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정확히 천연탄산수와 천연사이다로 압축된다. 이들 천연사이다와 천연탄산수는 1923년 이미 연간 5천 상자에서 1만 상자 정도가 생산되었고, 1926년에는 그 2배가 넘는 3만 상자 정도가 생산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928년 6월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조선내 청량음료수 수수요량은 1917년 2만 상자 내외에서, 1926년 현재 12만 상자(조선외지 6만 3천, 조선내 5만 7-8천)로 크게 증가했는데, 1926년 현재 경성 시내에서 조선내품으로 입하되는 것은 “충북산의 천연사이다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정광천수의 제품은 당시 청량음료시장에서 이미 압도적인 물량이 공급되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30년대 기사에 따르면, 조정탄산수는 천연탄산와사(gas)를 이용하여 완전한 천연탄산수와 천연사이다 2종을 제조하여 조선은 물론 일본 및 만주방면에 수출하였는데, 그

연산액이 3만 상자에 달한다고 기술되고 있다. 즉 1930년에는 이미 국내를 넘어 일본과 중국, 만주 등에도 수출한 것에 있다. 그리고 1935년, 1939년 「황군위문의 초정리 약수」 등의 표현에서 보면, 이들 제품은 일본 황군이 싸우고 있는 동남아 각지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 보면, 청주에서 생산되는 초정탄산수는 이미 청량음료분야에서 1927년 이후 전국 제1로 꼽히고 있고, 1943년과 1944년의 朝鮮年鑑을 보면, 초정광천수(초정약수)는 면화와 함께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것으로 나타난다.

4.2.2 초정광천수의 발전요인

초정광천수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특별한 제조공법, 과학적 성분분석, 충북선 열차 등을 이용한 유통 및 마케팅에 기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초정광천수의 제품은 천연탄산수와 천연와사를 이용한 특성적인 제조공법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이다 제조처럼 탄산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 초정광천수의 특성적 성분인 천연탄산수와 천연가스를 결합해 천연적인 제품을 만들어 낸 것에 있다. 제품명을 “크리스탈”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청정성과 천연성에 기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제품은 초정광천수 자체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성분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미 1905년에 전문기사를 투입해 초정광천수에 대한 철저한 성분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그 우수성을 공표하고 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6년간 총 9회의 실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다시 1926년에는 전문기사의 대대적인 분석을 통해 초정광천수에 대한 명료한 성분적 특성과 다른 광천수와 비교되는 성분적 가치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나카하라나 고바야시광천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성분분석과 함께 탁월한 마케팅 능력을 통해 제품을 판촉해 나가고 있다. 제조된 제품은 새로 개통된 충북선 열차를 통해 운반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제품은 축제 및 기업제휴 등을 통해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으로 공급 판매되고 있다.

<표 2> 조정지역에서 생산된 천연탄산수 및 천연사이다 생산 및 판매규모

구분	내용
1910-1920 (개진)	• 1905-00, 조선총독부, 전문기사를 통해 조정광천수에 대한 정밀조사 - 그 특성적인 성분을 통해 세계적인 희귀광천이라 보고 발표 - 농학, 공학, 의학 박사, 각 醫院長 수십인 들의 예찬과 英佛美 3領事의 이서 등이 발표
	• 1912-00, 3호천 굴착
	• 1912-00, 중앙시험연구소, 조정광천수 지질조사 및 화학성분분석(1회)
	• 1918-00, 중앙시험연구소, 조정광천수 함유화학성분분석(9회)
	• 1919-08, 中原鐵臣씨의 소유로 귀속
	• 1920-05, 1호천(영천) 축조
1921-1935 (中原)	• 1921-08, 中原鐵臣씨가 공장을 짓고 탄산수를 제조판매 - 中原商會 天然炭酸水製造工場 이후 1개 년 4타입의 5천 내지 1만 상자
	• 1921-11, 충북선철도 【조치원-청주】 구간 개통, 청주역 개설
	• 1922-05, 충북선철도 【청주-청안】 구간 개통, 내수역 개설
	• 1923-02, [충북산업지] - 목하 연생산액 1상자 4타입 3만 상자 내외를 제출해 내지만, - 그 용출량에 따르면 1만상자 이상의 제출능력이 있음
	• 1924-08, [동아일보] 산업개발장려와 각도의 희망조향(충북: 천연탄산수제조)
	• 1925-10, 조정광천수 화학성분분석
	• 1925-01, 금년사업계: 淸州, 天然炭酸水の 擴張(확장)
	• 1926-03, 椒井里冷炭酸鑛泉調査報文
	• 1926-09, [동아일보] 향토예찬 내 고장 명물 구녀산하탄산천 세종왕의 어탕약 - 지금부터 다섯해 전 일본인의 되어 그 자가 청량음료수 제조허가를 얻어가지고 천연탄산수의 천연사이다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일년에 1백 4십만 여병이나 만들어 냄(3만5,000~8만7,500箱 추정)
	• 1927-00, [충청북도 요람(1928.8)] 공업: 제지, 주조, 천연탄산수 - 탄산수 제조소: 공장 1개, 자본금 178,000圓, 종사자 21명(조선인 16명) - 1921년 부터 매년 규모를 확장하여 천연 용출되는 탄산수를 가지고 사이다와 크리스탈을 제조하고 있음 - 원천은 매일 600석의 용출을 보이고 있으며 수질의 가량도 동양제일이라 함 - 현재 용출량을 살펴보면 연간 216만 상자(1상자에는 2홉들이 병 48개가 들어있음)이고 그 가격도 1000만원 정도의 생산은 쉬운 일임
	• 1928-06, [동아일보] 청량음료수 조선내수급 - 조선내 청량음료수 전수요량 12만 상자 (1918년 2만 상자 내외, 1927년 6만 3천 상자 + 조선내 5만 7-8천 상자) - 경성지역 수급현황 - 朝鮮內品으로 入荷하는 것은 忠北産의 天然사이다와 크리스탈뿐으로, 日本品으로는 작년 중 대체 三矢사이다가 7,500箱, 린봉시룽 2,600箱, 미요시노사이다 1,900

	箱, 寶사이다 750 箱, 鶴사이다 700箱, 金線사이다 600箱 기타로 함께 일만육천삼백(16,300)箱이 공 급되었고 그 중 약6천상은 府外에 출하하는 모양으로, 약1만상자 내외가 경성에 서 소비되었다고 함
	• 1930-00, 중원약수 크리스탈을 시장에 판매하고, 서양에 통하여 가치를 발휘한 후 제2차 사업계획으로 목욕장을 시설하고 장래 酬應家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
	• 1930-11, [동아일보 28日] 내 고장 名産: 淸州의 靈泉 炭酸水の 王(下) - 天然炭酸水瓦斯를 이용하여 완전한 천연탄산수와 천연사이다 2종을 製造하여 朝 鮮은 勿論 日本及滿洲方面에 移出하는데 그 연산액 3萬函(합: 상자, 一函四打入) 에 달한다. - 靈泉의 湧出量이 一百函이상의 能力이 있는 朝鮮의 特産이다.
	• 1935-00, [김해중, 1981 조정리 광천수에 대한 고찰] - 1912-1919년, 총독부 중앙시험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광천수의 성분과 효력을 과 학적으로 입증 - 1921년 부터 중원철신씨가 병에 담아 연간 260만 상자를 일본 및 유럽지역에 수출 - 1935년경 탄산가스공장을 건립하고 천연가스를 채취하여 군대에 납품
1936-1945 (小林)	• 1943-1944, 조선연감 충청북도편. 청주 특산물 : 錦布加工品과 天然炭酸飲料 - 特히 東北四里의 地點 內秀에서는 東洋一の 炭酸水를 産한다.

주: 중일전쟁 1937년, 대동아 전쟁 :1942.12~1945.9

4.2.3 조정광천수의 사회적 변화

① 음료산업과 소유권의 변화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보면, 조정광천수의 소유가 일본인의 손에 넘어간 것은 1907년이고, 조정광천수를 이용해 조정지역에서 음료산업이 시작된 것은 1921년 8월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1939년 이왕직 소유를 거쳐 해방이후 한국인의 소유로 이전된다.

그리고 그 전개과정은 하나의 기업이 아닌 최소한 3개의 기업을 통해 생성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카하라에 의한 中原天然炭酸水工場, 시바타에 의한 柴田炭酸水場, 고바야시에 의한 忠北天然炭酸(주)라는 3개의 기업에 의해 조정의 음료산업은 형성 발전된 것에 있다. 나카하라는 영천을 구축하고 1호천(영천)과 3호천을 중심으로 천연탄산음료산업을 탄생시킨 것에 있고, 시바타는 제조상품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탄산수장을 개장 운영하면서 조정지역을 찾는 음수객을 대상으로 천연탄산수 시장을 개척하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있다. 그리고 고바야시는 천연가스를 생성하는 제2호천을 정비하여 새로운 산업기반을 만들고 1호천(영천)과 2호천을 중심으로 제품의 대량생산에 진입한 것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카하라의 中原天然炭酸水工場과 고바야시의 忠北天然炭酸(주)은 국내 음료산업을 선도하며 발전했고, 해방 이후 각각 (주)일화생수와 충북약수(주)로 이어지고, 이들은

다시 1990년 초 일화의 흡수통합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바타의 탄산수장은 세종대왕 이후 내려온 백중행사를 더욱 확대시켜, 백중행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변화적 특성

나카하라의 中原天然炭酸水工場과 고바야시의 忠北天然炭酸(주)은 각기 시기를 달리하고 있지만 1호천인 영천과 탄산가스공장을 매개로 음료산업 발전의 중요한 연계고리가 형성된다. 나카하라의 中原天然炭酸水工場과 고바야시의 忠北天然炭酸(주)은 영천을 탄산수공급의 주된 공급처로 이용했고, 나카하라가 구축한 탄산가스공장이 고바야시 시대에도 탄산가스 주입의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카하라의 中原공장과 고바야시의 음료공장은 다른 것에 있지만, 이들은 영천과 탄산수공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진다.

그리고 이들 음료산업은 백중행사와 탄산수장을 매개로 지역(관광산업)과 상호 연결되는 것에 있다. 이것이 조정광천수가 갖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즉 음료산업은 영천의 물과 탄산가스가 결합되어 천연상품으로 제조판매된 것이 중요한 특성이고, 또한 이러한 음료산업은 단순한 음료산업에 멈추지 않고 교통수단 등에 의해 백중행사와 탄산수장을 매개로 지역과 연계되어 졌다는 것이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지리적 범위는 탄산수제조에 필요한 3가지 원천뿐만 아니라, 축제가 이루어진 마을과 거리, 그리고 이러한 탄산수제품이 외지로 유통되고 또한 초정을 방문하는 음수객의 이용창구로 이용된 충북선 열차(내수역)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하나의 지역적 범위를 형성하는 것에 있다.

즉, 세종대왕의 방문으로 시작된 조정광천수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의 음료산업과 결합되면서, 하나의 산업과 장소가 결합된 하나의 구체적인 브랜드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정 영천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왔고, 많은 음료개발이 이루어져, 그 변질이 심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중개발된 것이 아니라 주로 광천수 원료만을 공급한 것에 있고, 그의 개발도 돌의 축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천은 원본 그대로의 자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추가적인 고찰

그리고 일제 강점기 조정광천수를 개발한 이들 3인(나카하라, 시바타, 고바야시)은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라 굉장한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카하라는 조선상업은행 이사를 거쳐 경성호텔의 경영자로 있던 사람으로 경영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인물이고, 고바야시는 조선총독부의 고급관리출신으로 텅스텐으로 성공한 당시 조선제일의 갑부이자

매우 의식 있던 인물이다. 따라서 초정광천수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는 그 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나카하라는 생산물품을 그가 경영했던 경성호텔에 크리스탈이라는 형태로 공급 판매했다. 그리고 당시 그의 양아들은 경성호텔뿐만 아니라 제과점을 운영하고 그들의 제품은 중국 등으로 이미 수출되고 있었다. 초정광천수의 제품은 이러한 인적인 네트워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1939년 부터 고바야시라는 초정광천수를 경영해 사업을 더욱 크게 확장한 것에 있으나 그 또한 당대의 거물이자 국내외적으로 대단한 사업수단이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인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나카하라는 고바야시의 아버지와 함께 같은 해 조선에 건너왔고, 시바타는 고바야시와 함께 당시 광산업 쪽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고바야시와 이종우는 사업에 관련 했던 인물이다. 즉 이들 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초정광천수는 한국의 근대 물 산업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초정광천수를 기반으로 근대 물 산업이 시작되었고, 또한 세계3대광천수로 발전하기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대 물 산업의 성립과정과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음료산업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초정광천수의 사회적 변화를 조사한 것에 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초정광천수가 일본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은 1907년이고, 탄산수 제조공장을 설립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8월로 나타난다.
2. 초정광천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나카하라의 中原天然炭酸水工場, 시바타의 柴田炭酸水場, 고바야시의 忠北天然炭酸(주)라는 3개의 기업에 의해 음료산업이 형성 발전해 왔고, 이들은 1호천, 2호천, 3호천이라는 3개의 원천을 기반으로 음료산업이 발전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초정광천수의 음료산업은 나카하라와 고바야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음료산업의 발전 시기와 공장입지의 위치를 달리하지만, 초정광천수를 공급하는 영천과 천연가스를 주입하는 탄산가스공장을 매개로 상호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초정지역의 음료산업 발전에 있어서 영천과 탄산가스공장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이들 초정의

음료산업은 1926년에 이미 국내 최대 시장으로 발전하고, 1930년대에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에 진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초정광천수가 이렇게 음료산업으로 성공한 것은 천연광천수와 천연가스를 이용한 특별한 제조공법, 조선총독부에 의한 과학적인 성분분석, 그리고 제품의 유통과 인지도 확산에 크게 기여한 충북선 열차와 백중행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산업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정광천수가 천연을 이용한 특수한 제조공정과 과학적 성분분석을 토대로 음료산업이 발전을 이루고, 이들 음료산업이 충북선 열차와 백중행사를 매개로 지역과 상호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세종대왕 이후 형성된 물의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첨단과학과 패키지상품을 통해 산업과 지역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과 문화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따라서 그 공간적 범위는 음료제품이 제조된 3개의 영천과 공장뿐 아니라, 축제와 관련해 거리와 마을이 발전하고, 또한 이러한 음료산업의 유통과 사람들의 이동에 필요한 충북선 열차가 이들의 중요한 창구로 이용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장소를 형성한 것에 있다. 그리고 음료산업을 이끈 사람들은 당시 호텔 및 광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엘리트계층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면, 초정광천수를 이용한 음료산업의 발전은, 단순한 물 산업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산업, 산업과 과학, 과학과 인물이 결합되며, 매우 특수한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정광천수가 세계3대광천수로 발전하고, 또한 현재와 같이 물의 공동관리가 어렵게 된 것은,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세계3대 광천수가 어떤 관계로 발전해 왔고, 또한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밝히는 것은, 초정광천수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세계3대 광천수의 실체와 지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초정광천수의 발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參考文獻】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세종실록지리지>충청도>청주목」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세종왕조실록-세종실록, 세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 회사조합자료」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 자료집성」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 인물자료」
 김해중(1981)「椒井里 鑛泉水에 대한 고찰」『식품과학』14(4)
 임동철(2009)「조정행궁터의 복원과 문화컨텐츠개발」조정행궁터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충북일보(2014)「청주청원통합으로 본 조정약수」(2014.07.24)
 朝鮮總督府(1943)「朝鮮年鑑」
 朝鮮總督府(1945)「朝鮮年鑑」
 大態春峰(1923)「淸州沿革誌」大正12年 10月 15日 發行, 淸州郡
 天野行武(1923)「忠北産業誌」大正12年 2月 28日 發行, 忠淸北道
 駒田亥久雄(1926)「朝鮮地質調査要報 第七卷」[椒井里冷炭酸鑛泉調査報文]大正15年 3月 31日 發行,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朝鮮功勞者銘鑑刊行會(1936)『朝鮮功勞者銘鑑』朝鮮總督府
 忠淸北道(1928)「忠淸北道要覽」1928년 8월 편찬: 충북발전연구원(1996) 충북 100년
 忠淸北道(2004)「충북100년 연표(1986-2002)」
 NAVER「뉴스라이브러리(조정 관련기사 56건)」

논문투고일 : 2015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7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0일

〈要旨〉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조정광천수의 사회적 변화

- 음료산업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

조정광천수는 한국의 근대 물 산업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 조정광천수를 기반으로 근대 물 산업이 시작되었고, 또한 세계3대광천수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대 물 산업의 성립과정과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연구로서, 산업과 소유권을 중심으로 조정광천수의 사회적 변화를 조사한 것에 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4점이 밝혀졌다.

1. 조정광천수가 일본인의 소유로 넘어간 것은 1907년이고, 탄산수 제조공장을 설립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21년 8월로 나타난다. 그리고 1939년 이왕직 소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정광천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나카하라의 中原天然炭酸水工場, 시바타의 柴田炭酸水場, 고바야시의 忠北天然炭酸(주)라는 3개의 기업에 의해 음료산업이 형성 발전해 왔고, 이들은 주로 1호천, 2호천, 3호천이라는 3개의 원천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리고 이들 음료산업은 천연탄산수와 천연가스를 결합한 특수한 제조공법과 조정광천수에 대한 과학적 성분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음료산업은 탄산수장과 충북선 열차(내수역)를 연결하는 패키지 상품(백중행사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하나의 산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성을 갖는 하나의 장소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즉 일제강점기때 새롭게 시작된 음료산업은 특수한 제조공법과 과학적 성분분석이 연계되고, 지역과 산업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공간적 범위는 음료제품이 제조된 3개의 원천과 공장뿐만 아니라, 축제와 관련해 거리와 마을이 발전되고, 또한 충북선 열차(내수역)가 이러한 음료산업의 유통과 사람들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조정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장소성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Social Change of Chojeong Mineral Water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Industry and Property -

Chojeong mineral water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Korea's modern water industry. Chojeong mineral water formed the basis of modern water industry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became one of the world's three mineral water. It is not identified how the development has been made. A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modern water industr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ocial change of Chojeong mineral water focused on industry and ownership. The result showed four important points as follows.

1. It was found that the ownership of Chojeong mineral water was transferred to Japan in 1907 and carbonated water production plant was established and commenced on August 1921. In addition, the plant became a property of Lee Wang-jik in 1939.
2. It is known that Chojeong mineral water has developed by a company, but in fact the beverage industry has developed by three companies, Nakahara Natural Carbonated Water Cooperation, Shibata Carbonated Water Place and Chungbuk Natural Carbonated Cooperation which is located in Kobayashi. It was found that these companies have developed on the basis of three sources including 1st, 2nd and 3rd water supply sources.
3. Through unique manufacturing methods of combining natural carbonated water and natural gas and scientific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Chojeong mineral water, world's famous product was developed in the field of beverage industry. In addition, packages (event for Buddhist all souls' day) connecting carbonated water place with Chungbuk line (Naesu station) were developed and this led the beverage industry to be a pla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not just a industry.
4. That is, a new beverage industry begun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is growing into a major industry based on the connection of unique manufacturing methods and scientific analysis of components and the combination of region and industry. Therefore, the spatial range of the development is not limited to the three water supply sources and plants beverages manufactured. As streets and villages are developed through local festivals and the Chungbuk line (Naesu station) acted as means of distribution of beverage industry and transportation, a large placeness of Chojeong is formed.